

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995.39 (+308.18)		822.19 (+8.69)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900 (+0.016)		1342.75 (-7.65)

사업 정상화·폐업·재창업·취업 돕고, 성실 상환 인센티브

‘벼랑 끝’ 소상공인 경제복귀 지원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62.4만 건
소상공인 많은 6대업종 비중 커
폐업자 68% 채무, 평균 8500만원

정부와 금융권이 '위기의 자영업자' 구하기에 나선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갚지 못한 빚을 정리하고 사업정상화나 폐업, 재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인하, 전용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벼랑 끝 소상공인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 폐업자 건수는 62만4000건에 달한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래 반기 기준 가장 많다. 앞서 지난해 폐업 건수는

97만6000건으로 집계돼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202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폐업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률(가동사업자 수 대비 폐업자 수)은 8.64%였는데, 같은 기간 소상공인 비중이 큰 6대업종(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의 폐업률은 11.08%를 기록했다. 특히 소매업(15.40%)과 음식점(15.14%)의 폐업률이 높았으며, 폐업 사업장 가운데 49.2%는 3년 이상 영업한 사업장이었다.

지난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가운데 68.5%는 빚이 있었고, 평균 부채는 사업장당 약 8500만원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이었던 지난 2020~2023년 동안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359조원이다. 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약 155조원의 대출이 아직까지 빚으로 남았다. 지난해 9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조치 및 상환유예가 종료됐고,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정부, 경제활동 복귀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한계에 달한 만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나선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금리상승기 대비 취약자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사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르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metro

‘폴더블 아이폰’ 공개 임박 삼성전자와 본격 경쟁구도

애플, 9일 미국서 신제품 공개 행사
올해 애플 폴더블 점유율 25% 전망
삼성D·LG이노텍 등 부품 수혜 예상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공개가 임박하면서 폴더블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완제품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을 벌이게 됐지만, 전체 시장 확대에 따른 판매 증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등 부품업체들은 애플향 공급 확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연다.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으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이 시장 진입 첫해인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38%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올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시장에서 애플과 직접적인 경쟁을 앞두고 있다.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 이후 8세대에 걸쳐 폴더블 제품을 선보였고, 올해는 갤럭시 Z 폴드8·폴드8 울트라·폴립8 등으로 제품군

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진입으로 폴더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전체 시장 확대가 삼성전자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첫 폴더블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하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7.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와 5.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애플 폴더블용 OLED 소량 양산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생산량을 월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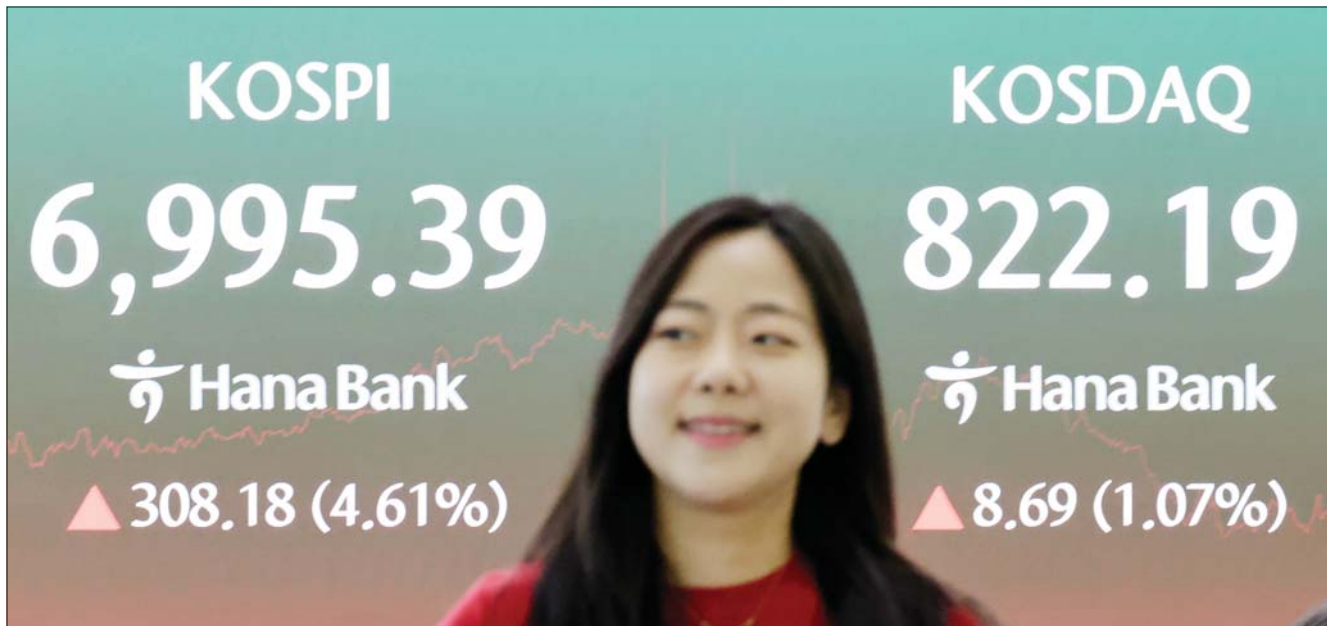
폴더블 시장 확대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달 아산2단지 신공장(A7)의 양산 제품과 관련해 폴더블 패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A7의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 초다. 폴더블 OLED는 반복해서 접고 펴는 구조에 맞춰 내구성을 확보하고 화면 주름을 최소화해야 해 일반 스마트폰용 OLED보다 기술 난도가 높다.

LG 계열에서는 LG이노텍이 애플의 폴더블 공급망에 참여한다. LG이노텍은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신형 아이폰 시리즈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더블 아이폰에는 4800만 화소 광각·초광각 등 2개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집음 무선주파수 패시브 시스템(RF-SiP)도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 계속〉/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코스피 7000 회복 눈앞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08.18포인트(4.61%) 오른 6995.39로 장을 마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8.69포인트(1.07%) 오른 822.19로 장을 마쳤다. /뉴시스

주주단체, 삼성전자 이사회·노조 집행부 추가 고발

“이익처분 권한, 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운동본부, 성과급 배임 혐의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문제 삼아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과 연동한 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내놓자 삼성전자 이사회와 노조 집행부까지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7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삼성전자 이사회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집행부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기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건과 공동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통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동부의 이번 지침으로 기존 고발의 근거가 한층 분명해졌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진이 결정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를 임직원에게 배분한 것은 임무 위배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미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민사 소송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올해 초 지급한 초과이익분배금(PS)과 삼성전자가 다비이스경험(DX)부문과 고객센터(CSS)사업팀 임직원에게 지급한 자사주가 대상이다. 삼성전자 다비이스솔루션(DS)부문 성과급 협약은 기존 형사 고발 대상이다.

대안으로는 영업이익 대신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방식을 제시했다. 기존 협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주주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민사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김민석 연설李 찬양 ‘정권 용비어천가’…독주 막아내겠다”
▲與전략기획위원장, 언행 주의령…“호르무즈 정부 입장 정해진 바 없어”
/사진 뉴시스

▲조국, “李대통령, 정책·정치 문제 입장 밝혀야…與, 합당 사과가 먼저”
▲한동훈, “김승원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용혜인, 성평등부 핵심 법안 잇따라 반대·기권…과거 표결 보니
▲교육감들, 교육부 ‘교부금 10.1% 증가’ 정면 반박